중문천의 기행, 전설, 지명 그리고 개답

진 관 훈
제주대학교 겸임교수

Ⅰ. 천제연의 기행

1. 지영록, 남환박물, 남사록

지영록(知瀛錄, 1694)[1]에 의하면,

천제연은 고둔과원에서 다시 20리를 가니 서귀성의 천지연과 같은 못이 있는데 또한 천지연이라 부른다. 폭포 능선에는 초가집 세 채가 가지런히 세워져 있고, 천지연을 감상

1) 知瀛錄은 이익태가 1694년(숙종 20년) 5월 제주목사로 부임해 1696년까지 있으면서 섬을 두 번이나 순시하면서 일기체 형식으로 쓴 저서이다.

天地淵開大瀑流
移來築石壁深湫
空中負箭菊人步
第一奇觀此射帳
丁亥季秋 任觀周
국제로타리 3660지구
중문로타리클럽

사진 1. 임관주 시비

하다 보니 현으로 가는 길이 늦어졌는데, 천지연의 뛰어난 경치가 서귀성의 천지연과 정방연보다 더 나아 보였다.

천제연의 이름은 옛날에 옥황상제의 7선녀가 이곳에 내려와 목욕을 하던 곳이라 하여 천제연이라 부른다. 웃소의 서쪽 암벽에는 임관주(任寬周)[2]의 시가 새겨져 있다(사진 1).

天帝淵
天帝淵開大爆流
移來叢石瀉深湫
空中負箭芻人步
第一奇觀此射帿
천제연 열린 곳에 큰 폭포 이루며
암벽을 쌓아 올려 깊은 연못 만들었네
추인은 살을 지고 공중을 걸어가니
이곳에서 활쏘는 관경이 천하제일이 아닌가

남환박물(1702년)에 의하면
소천지연(小天池淵)은 대정 동쪽 35리에 있다. 이는 색달천의 하류이다.

남사록(南槎錄, 1601년, 김상헌)[3]에 이르기를

'바다 입구로부터 좌우는 석벽으로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으며 구비져 돌아 아름답다. 동구(洞口) 속의 나무들은 모두 겨울에도 푸르다. 석벽위를 따라 몇 리를 지나면 한가닥 가짓길을 통하여 더위 잡으면서 내려간다. 바위와 골짜기가 광량하여 대낮에도 음침하다. 바람을 감추고 비를 모아 귀신이 울부짖을 것 같고 사람으로 하여금 추위에 떨며 움추려들게 한다. 기이한 모습과 그윽하고 괴이한 느낌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폭포수의 상류는 한라산 남쪽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그 사이 5 ~ 60리를 평평하게 펴져서 갈래갈래 흐르기도 하고 혹은 함몰한 곳을 만나 못이 되 밖에서도 소리가 들리고 양도(兩道)의 흰 무지개가 하늘 솥에 굽어 마시는 듯하다. 경승은 실로 박연폭포와 엇비슷하나 폭포 물줄기의 높고 낮음과 동구를 들어오는 문의 넓고 좁음은 서로 미치지 못하는 데가 있다. 다

2) 1767년(영조 43년) 6월 사련원 정언이던 그는 삼상을 비롯한 이조판서, 도승지를 논척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제주 대정현에 유배되어 창천리에서 3개월간 적거생활을 하였다.)

3) 1601년 제주에서 일어난 길운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김상헌(金相憲)을 안무사로 파견하였는데 이듬해 1월 24일 제주를 떠날때까지 제주도를 살펴보면서 보고 느낀 것을 일기형식으로 기록한 책이다.

만, 바다밖에 감춰져 있어서 유람장소로 미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 경승을 아는 이 드물다.지지(地誌)에 역시 빠뜨려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정말 애석한 일이다.' 고 하였다.

2. 남명소승(南溟小乘)[4]

1577년(선조 10년) 대과에 합격한 임제(백호)는 부친 진(晋)이 제주목사로 있어 그해 11월 9일 제주에 들어왔다가 11월 25일 경 중문천를 기행하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동해방호소(회수)에 도착했다. 대정현 사람들이 차를 대접하기에 목을 축이고 조금 쉬었다가 말을 달려 바닷가 좁은 길을 들어서서 천제담(天帝潭)으로 갔다. 굽어보니 물이 맑고 홍대(泓大)함이 천지담과 같고 삼면의 암석이 족립하여 모두 팔면을 이루었다. 동부(洞府)는 깊숙하여 바다에 도착하는 데 5, 6리 가량된다.

기암절경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여가가 없어서 다 찾아볼 수 없었으며 가인(佳人)과 이별하는 듯이 길을 떠났다. 길에서 한 스님을 만났는데 미간에 운하의 기상이 많은 지라 나는 깜짝 놀라 "스님은 어디에 사시오?"하고 물었다. 스님은 손짓하며 응답하기를 "존자암에 사노라"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제주에 들어 오면서부터 날만 있으면 선산(仙山)에 가 보고자 하였으나 눈이 쌓이고 얼음이 겹쳐져서 올라갈 길이 없으니 내 눈으로 하여금 꿈에서나 보도록 애쓸 뿐입니다. 스님께서는 어느 길을 따라 산에서 나오셨습니까?" 하니 "빈도(貧道)는 설마(雪馬)를 타고 어렵게 산을 나와 소금을 얻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였다.

3. 현폭사후(懸瀑射帿)[5](탐라순력도 현폭사후)

이 그림은 이형상(李衡祥)목사가 제주목사로 부임했던(1701-1702) 기간인 1702년(숙종 28년) 10월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제주전역을 동쪽으로 돌아 대정현에 가는 도중인 11월 6일 중문 천제연 폭포에서 활쏘는 모습을 화공 김남길(金南吉)에게 그리게 한 것이다.

천제연 상·하 폭포를 구분해 놓고 알소의 동서암벽에 줄을 동여메고 그 줄을 이용해 추인(芻人)이 좌우로 이동하게 했다. 과녁을 향해 쏘은 화살을 상대편에서 뽑아 추인에게 꽂으면 이쪽에서 추진의 메달린 줄을 당겨 추인에게 꽂힌 화살을 건네 받은 것이다.

---

4) 1577년(선조 10년) 대과에 합격한 임제(백호)는 부친 진(晋)이 제주목사로 있어 그해 11월 9일 제주에 들어왔다가 제주지역을 보고 느낀 점을 기록한 책이다.

5) 이형상(李衡祥)목사가 제주목사로 부임했던(1701-1702) 기간인 1702년(숙종 28년) 10월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제주전역을 동쪽으로 돌며제주의 모습을 화공 김남길(金南吉)에게 그리게 한 것이다.

4. 탐라록(1841, 耽羅錄)[6]

천제연: 9월 23일 날씨 맑음. 대정현으로 가다가 중간에 점심을 하고, 중문원으로 가서 천제연을 감상하였다. 천제연 옆에는 중문원이 있고 그 사이로 폭포수가 떨어지는데, 그 모습이 심히 장대하고 아래에는 맑고 깨끗한 못이 있는데, 그 깊이가 수십장이 될 것 같다. 벼랑 좌우에는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고 기이한 나무들이 우겨져 있어, 정방폭포, 천지연 폭포와 가히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우나, 다만 지형이 깊고 험한 벼랑이 비교할만 하다.

아래로 내려가 바라보니 춥고 한기가 느껴져 오래 머물지 못하였는데, 지역 주민들이 멧부리 건너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나서는 큰 줄을 양쪽 벼랑에 묶어 놓고서 풀로 만든 인형을 그 줄에 매어 놓아, 과녁을 세워 화살을 쏘게 하고서는 인형에 화살을 꽂아 줄을 잡아당기면서 오가게 하니, 그러한 광경이 참으로 재미있었다. 오후에 가랑비가 왔는데, 대정현청으로 가서 쉬었다.

II. 중문천의 전설

중문 서편에 있는 절경인 폭포를 천제연이라 부르는데 이런 이름의 유래는 이 폭포의 바위틈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로 온갖 제기를 씻고 제물로 만들어 하늘에 제사를 지내었다하여 붙여졌으나 그러한 풍습이 없어진 지는 오래다.

그런데 이곳은 절경이라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시를 남겼고, 어떤 때는 이 하천의 서쪽에 과녁을 만들어 놓고 동편에서 화살을 쏘아 맞히는 활내기를 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목사가 이곳에 구경온 때에 이런 행사를 벌여서 구경하는 목사의 흥을 더욱 돋구었다고도 한다. 또한 이곳에 얽힌 다음과 같은 전설은 상당히 흥미롭다.

옛날 중문이라는 동네에 한 농부가 살았는데, 그들은 결혼을 한지 십여 년이 지나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어 무척 걱정을 하였다. 그래서 그들 부부는 천제연에 밤이면 밤마다 찾아와서 그 맑고 깨끗한 물에 목욕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늘에 기도를 드렸다. 부부가 바윗돌 반반한 위에 무릎을 끓고 지성으로 기도를 드리기 두어 달 후에 다행스럽게도 부인에게서 태기가 있어 부부는 하늘에 감사하면서 기뻐하였다.

열 달 후에 옥동자를 분만하였으니 그들의 기쁨이야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아기는 무

6) 耽羅錄은 1841년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1843년 6월에 이임한 이원조(李源祚)가 이원진의 탐라지를 근간으로 일기체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럭무럭 자라 어느덧 서당엘 다니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부모들의 기대도 사뭇 크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는 재주가 비상하여 천자문부터 사서삼경에 이르기까지 남보다 빨리 깨치었음은 물론, 행실이 얌전하고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그의 부모는 물론 온 마을, 이웃마을에서까지 칭송이 자자한 형편이었다.

그런데 정말 불행히도 아들이 17세가 되던 해에 아버지가 이름도 모를 괴질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 청년은 책을 던져두고 부친의 관을 부여잡고 통곡을 하면서 서러워 하였고 장사를 지낸 후에 묘소에 움막을 짓고 삼년을 죄인으로 지내다가 삼년상을 지낸 후에 내려와 다시 글을 읽기 시작하였다.

청년이 나이 스물 두 살 되던 해에 큰 뜻을 품고 서울로 올라가 과거에 응시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낙방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자기 글이 모자랐다고 생각하고는 내려와서 다시 글읽기를 계속하였다. 그런데 다시 그에게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불행이 뒤따랐으니 어머니가 이상한 병으로 며칠을 몸져 눕더니 그만 실명을 하고 말았다. 정말 청천의 벽력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과거에는 낙방을 하였고, 이제 어머니까지 이 지경이 되었으니 그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세상이나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직 어머니 병간호에 정성을 다하였다. 성심을 다하여 어머니를 간호한다면 하늘도 그 값을 꼭 주시리라고 믿었다. 그는 다시 하던 글공부를 그만두고 오직 어머니 병간호에만 진심을 다 하였다.

그는 새벽이 되기 전부터 천제연으로 나아가 맑은 물소리를 들으면서 바위 위에 끓어앉아서는 하늘에 기도를 드렸다.

"천지신명님. 소인의 죄를 통하여 꾸짖어 주시고 제 모친의 병환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인의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헛된 영화에 눈이 어두워 글공부를 헛되이 한 것을 소인이 이제 깨달았사오니, 소인의 죄를 저에게 돌려 주시옵고 제 어머님에게서 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의 기도는 끝나지를 아니하였다. 열흘이 지나고 스무날이 지나도 기도는 계속되었다. 낮이면 어머니께 정성으로 병간호를 하면서 효험이 있다는 약은 백리를 가서도 구해다가 드리고, 새벽이면 천제연 폭포 앞에 끓어 엎드려 기도를 드리기를 하루도 쉬질 않았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기를 눈이 오나 비바람이 부나 삼년을 계속하였다. 그동안 청년은 하루도 거르는 날이 없었다.

눈발이 휘날리며 살을 가르는 매운 바람이 부는 이른 겨울 새벽이었다. 어느날처럼 그는 그 차가운 바위돌 위에 끓어 엎드려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바람과 눈이 멎고 사방이 고즈넉해지면서 눈앞에 섬광이 번쩍하였다. 하도 이상하여 그는 고개

를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멀리 하늘에서 이상한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기특하다, 네 정성이 바로 네 어머니를 구할 것이다."

청년은 이 소리가 혹시 꿈이 아닌가 하고 눈을 비벼봤다. 틀림없는 생시였다. 더구나 무릎 아래의 찬 냉기를 느끼고서 꿈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는 다시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고개를 쳐들었다.

"네 정성이 하도 갸륵하여 내가 네 어미의 병을 낫게 하겠노라.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네 효심을 본받아 세상의 풍습을 아름답게 이루기를 바라노라. 이는 네가 과거를 보고 벼슬을 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일보다 더욱 소중한 일이니라"

청년은 그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눈을 감고 간구를 하고 있었다.

"오 하느님.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하오면 모든 것을 하느님 뜻대로 따르겠나이다."

"다시 이르노니 너는 이제 글에만 뜻을 두지 말고 그 글을 직접 행하는 일에 마음과 몸을 바쳐라. 아는 일은 쉬우나 행하는 일은 어려우니라.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되어 자신을 사악하게 만들고, 백성을 못살게 만들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실로 간악한 사람이 되어 오히려 세상을 더 어지럽히는 죄까지 범하게 되느니라."

그 우렁차고 진실되고 사무치는 말이 청년의 뼈속까지 스미어드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너와 하직하고 하늘로 가노라. 내 말을 명심하고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도록 하여라."

말이 끝나자 마자 다시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차차 그 찬란한 빛이 스러지면서 잠시 후에는 전과 같이 눈바람이 들이치는 추운 날씨로 변하였다.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까 들었던 소리와 하늘이 환하게 빛나던 일들을 새기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머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들은 어머니를 부여잡고 어쩔 줄을 몰라 허둥거렸다.

"글쎄다. 어쩐지 일어나고 싶더구나.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그렇게 몸이 가볍고 마음이 상쾌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앞에 무엇이 번쩍하고 빛이 지나가는 것 같더니, 이상하게 손으로 눈을 쓸어지더구나. 그런데 아니 앞이 환하게 보이는 게 아니니. 꼭 오랜 잠에서 깬 기분이더구다."

어머니는 어디 외방 갔다와서 이야기 하는 투로 말하는 것이었다.

"어머님, 이는 하느님이 우리를 도우신 겁니다. 제게 큰 일을 하도록 명령을 해주셨읍니다."

청년은 아까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이제부터 글공부를 그만두고 자기가 할 일을 이야기 하였다.

"그래. 너는 바로 하늘이 준 자식이다. 천제연 폭포에 가서 하늘에 기도를 드려 너를 얻었으니 너는 마땅히 하늘의 명대로 살아야 하는 거다."

그로부터 청년은 과거를 보려던 글공부를 그만두고 몸소 착한 일을 찾아 하면서 살기 시작하였다. 남이 싫어하는 일을 혼자 맡아하며 글 모른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어린 아이들을 모아 옳은 행실을 보여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고, 마을 사람들의 사소한 싸움에 끼어들어 화해를 이루어주며, 그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어떤 때는 바보와 같이, 어떤 때는 성난 말과 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부지런히 살아나갔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은 누구나 그를 따르게 되었고, 그렇게 되자 마을에는 차차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곁들어지게 되었다.

탐라기행 한라산[7)]

中文院觀瀑布故事
牧使輩의 惡魔的享樂

天帝淵 깊은 洞天에 해지는 줄을 잊어버리고 沈碧한 淵中을 들여다보고 앉았으니 世塵迷夢이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大自然의 神聖한 感化가 이름따라 한결 더 깊은 지금 이 天帝淵은 살피고 생각할수록 偶然히 이루어진 景觀은 아닌냥 하다.

千仞 絶壁이라
玉屛風 들러치고
작은돌 큰바위라
群山이 모디신데
天帝淵 비단같은 물은
寶座신가 하노라

7) 노산(鷺山) 이은상(李殷相), 『한라산(漢拏山)』, 1937년 12월, 조선일보사 출판부

이같이 天帝의 玉座를 만들려고 거룩한 意圖아래서 造化의 神秘한 손이 움직인 것이라 하면 오늘 塵裹의 무리들이 여기 와 洗禮를 받고감도 또한 그의 恩典으로 생각함이 옳을 것이다.

아무리 헤아려도 地上의 一區 같지는 아니한 이 仙界에서, 淸幅에 배불리고 있는 지금 뉘가 갈길이 바쁘다 하야 떠나기를 재촉하는가.

天帝淵 넘는 물에
손씻고 귀를 씻고
저사람 무슨 일로
우둑허니 앉았는고
半生의 괴로운 靈을
마자씻고 가려노라

생각하고 노래하고 웃고 즐기고 실컷 쉬고 가는 우리 몸이 어떻게나 가볍고 가쁜한 지 오늘밤 나그네 잠자리에 새것같이 눕게될 것이 또한가지 恩典이 아니겠는냐.

그런데 天帝淵을 떠나려 하매 문득 생각나는 이 곳의 故事가 있다.

前日이 天帝淵의 東岸에 있던 中文院이란 곳은 牧使가 島內를 巡行하다가 쉬던 데다.

그리고 觀爆하면서 두언덕에 貫革을 세워 武士들을 시켜 활을 쏘게 하는데 虛空에다 長索을 걸어놓고서 사람을 시켜 그 줄에 매어달려 화살을 주으러 다니게 하였었다. 화살줍는 사람이 半空을 타고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牧使輩 즐거이 놀았었는데 이것이 그대로 邑例가 되었다(耽羅誌)

사람의 취미가 이러한 곳에 까지 갈 수가 있었는가. 그 惡魔的享樂을 爲하여 남의 生命을 半空中에 새끼를 붙들고 오고가게 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想像도 못할 일이다.

아닌게 아니라 저 希臘文明의 迷路에 兒女의 人皮를 벗기면서 醉하야 웃고 즐기던 者가 있었든 것을 記憶하거니와 저것이나 이것이 다 제 갈 곳까지 가고야만 歷史的因果가 너무도 明瞭하지 아니하냐.

언제나 어디서나 自然은 거룩한데, 人事는 惡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는 것이니, 果然『物是人非』란 眞理인가.

黃昏은 길우에 棕侶입사귀 깔리듯 고요이 나리고, 우리는 그 위로 하로의 『호산나』를 부르며 드리닿으니 西歸浦라 부르는 곳이다.

이 西歸浦는 이 섬의 南端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浦口다. 우리는 오늘밤 이 섬의 첫날밤을 이 아름다운 포구에서 쉴 것이 미리부터 흥겨로워 기쁨을 참을 수 없다.

이곳은 옛날 鎭터로서 本來는 저 烘爐川上 에 있던 것인데 宣祖年間에 牧使 李沃이 지금 이곳으로 자리를 옮기고 周八百二十五尺 高十尺이 石城을 쌓으며 城中에 客死와 軍器庫 等을 세우고 또 荷候船을 두어 恒常 海戰을 爲하야 準備하던 곳이어니와 우리는 지난날의 이러한 歷史를 생각하기보다는 오늘밤 이 달밝은 浦口에서 그림과 詩의 世界를 逍遙할 것만이 기쁘고 고마울 따름이다. 우리는 旅客에 들어가 시장한 배를 채우면서도 연방 窓밖을 내다보며 그림같은 바다위에 달이 오르기를 기다린다.

Ⅲ. 중문천 부근의 지명

1. ᄀᆞ른내

중문동 760번지 지경으로 마을의 북쪽 앞거리와 '먼내ᄆᆞ슬'을 지나 2km정도 올라간 지경이다. 중문마을의 북서쪽으로 2km정도 거리에 있으며 천제연의 줄기이다. '먼내ᄆᆞ슬'을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내(川) 줄기가 가로 놓여있고 이 부근에서 서녁내와 동녘내가 서로 갈려지기 때문에 'ᄀᆞ른내'라 부른다. 'ᄀᆞ른'은 갈라지다의 제주어이다. 이 부근 냇가에는 구슬잣밤나무가 울창하다. 이곳을 지나면 '보리저베기', '언불산전', '제비든밧'으로 갈 수 있다.

2. 두어물 | 두께물

'ᄀᆞ른내'의 남쪽에 위치하며 중문동 928번지 일대이다. 바위가 그릇의 덮개처럼 생겼다고 해서 '두께물'이라고도 하고 물고기가 입을 벌린 머리모습을 해서 '두어(頭魚)물'이라고도 불린다. '두께'는 두껑의 제주어이다.

3. 웃내도

중문마을에서 북쪽으로 1km정도 떨어진 이곳은 중문동 1031번지 서쪽인 천제연 줄기의 중류지역이다. 과거에 '웃한질'이라 부르는 길의 동, 서쪽을 이어주는 냇가의 입구라는 뜻이다. '도'는 입구의 제주어이다. 1980년대말 도로를 확장하고 튼튼한 콘크리트 다리를 놓아 중산간 도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

4. 장기ᄃᆞ루 | 장구ᄃᆞ루

중문동 1428번지 일대를 말한다. 제2천제교 동쪽에 해당된다. 장구처럼 양쪽으로 퍼지

고 가운데가 좁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또한 새로 생긴 천제교 다리 동쪽 100m경으로 밭가운데 두 개의 큰 돌 사이에 장기판 같은 넓은 돌이 있어 장기를 두는 모양으로 생겨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ᄃᆞ루'는 작은 밭을 나타내는 제주어이다. 현재는 길이 뚫리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5. 상여궤 | 생이궤

중문동 1379번지 하천가에 있다. 제2천제교 다리 밑 냇가 바로 곁에 천연적으로 형성된 작은 굴을 말한다. 제2천제교 다리위에서 밑을 바라보면 널따란 냇창바닥에 많은 물이 고여 있다. 이 물통이 중문마을 사람들이 설촌 이후 식수로 사용하던 곳이다.

1960년대 까지만 해도 바로 앞에 큰 소(沼)가 있어 저수량도 많고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 곳으로 예전에 식수로 이용했다.

이곳에 마을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 운구시 쓰던 상여를 보관하였었다고 해서 '상여궤'라고 이름 붙여졌다. 대정군 고지 기록에 의하면, 제2천제교 다리 밑에 나무다리가 있었다고 한다. 이곳을 통해 동서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오고 갔으나 제1천제교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 이용을 안한다.

6. 백구 | 배꿉물

중문동 1475번지 일대이다. 중문마을 서북쪽인 '백구동네' 사거리의 서쪽으로 가노라면 마을에서 200여m 거리에 천제연 줄기가 나오고 세월을 간이시멘트로 포장을 해서 서쪽으로 나들이 하게 만들었다.

이곳은 백구동네 아이들이 멱을 감는 곳이다. 원래 냇창은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소나 말이 다니기가 불편하다. 그러나 동쪽으로 모래와 자갈이 깔려 있어 소나 말이 쉽게 통행할 수 있다. 못이 커서 한꺼번에 백마리의 소와 말이 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백구(百口)라고 불려졌다. 혹은 중문마을의 지형이 배형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이 배굽이 되므로 배꿉에 고인물, 즉 배꿉물이 되었다고도 한다. 1994년에 다리 확장공사를 하면서 이 일대가 매립되어 지금은 과거의 모습을 찾을 길이 없다.

7. ᄃᆞ람지궤 | 다림지궤

천제연 중류인 제2천제교 다리에서 200m정도 남쪽에 있으며 중문동 1541번지 부근 서쪽 내 안쪽이다. 냇가의 동쪽 절벽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작은 굴로 다람쥐가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궤'는 작은 바위그늘집 정도의 굴을 나타내는 제주어이다. 과거에 선인들이 이곳에서 원시생활을 하였던 곳으로 바로 옆에 좋은 물을 끼고 있

다. 이곳에 중문마을 본향신을 모신 큰 당이 있다. 3평 정도의 자연동굴에 신상을 만들어 모셨으며 당굿을 할 때 이 신상을 제단에 모신다. 제일은 음력 1월 15일과 8월 15일이다.

8. 올리소

천제연 1단 폭포에서 상류쪽으로 500m 정도 올라간 중문동 1541-3번지 옆에 위치한다. 냇바닷이 매끄럽고 많은 양의 물이 고여 있어 오리떼가 이 곳 물에서 놀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올리'는 오리를 나타내는 제주어이다. 바로 위에는 선인들이 원시생활을 했던 '다람지궤'가 있다.

9. 천제연구명

천제연 상단폭포(웃소)에서 200여m 올라간 곳에 있는 샘으로 중문동 1483번지 지경을 말한다. 천제연 내에 위치한 샘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구명'은 여름철 천둥치면서 비가 많이 내리면 샘이 솟아나는데 이를 '구명'이라 한다. 수량이 풍부하고 맑으며 물이 차서 여름철 멱을 감기에 적합하다. 이 물이 흘러내리면 웃소에 폭포를 이루어 천제연 폭포의 풍광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사진 2).

사진 2. 천제연구명

10. ᄀᆞ래소 | 3단폭포

천제연 3단폭포에서 300여m 아래인 중문동 2785번지 서쪽에 있다. 중문 천제연 3단 폭포의 이름이다. 높은 절벽에서 한줄기로 물이 떨어져 소용돌이치면 마치 'ᄀᆞ래'가 돌 듯이 물이 돌기 때문에 'ᄀᆞ래소'라 부른다. 'ᄀᆞ래'는 맷돌의 제주어이다. 수심이 깊고 계곡을 이루고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매우 어렵다.

11. 만지샘

천제연 3단 폭포의 동쪽 가파른 언덕 중간쯤, 즉 '베릿내오름'의 '윗오름' 중간쯤에 우치하며 위쪽 '논골'에 붙어 있으며 중문동 2246번지 지경을 말한다. 지금은 천제사가 자리잡고 있다. 서쪽을 향해 샘이 솟는데 아무리 가물어도 샘이 마르는 일이 없다. 집안에 제사를 지낼 때 이 물을 길어다 제를 지냈다고 한다.

12. 진소

'만지샘동산' 서쪽 계곡인 중문동 2247번지 옆쪽이다. 'ㄱ래소'에서 30여m 내려간 곳으로 소를 이루었는데 수심도 깊고 폭도 넓어 헤엄쳐야만 넘나들 수 있다. 소가 길어 '진소'라 부른다. '진'은 길다의 제주어이다. 여기에는 은어, 참게, 장어, 새우 등이 많이 서식했었으며 가장 깊은 계곡으로 통행이 불가능하다.

13. 비대천

천제연 안으로 중문동 2785번지 아래이다. 천제연 입구에서 돌계단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남쪽으로 내려가는 계단과 북쪽(웃소)으로 내려가는 갈림길이 있다. 남쪽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1970년대 이전 마을사람들이 음료수로 이용했던 물통이 있다. 바로 옆에 비가 오지 않고 가물 때 하늘에 기우제를 올리던 곳이 비대천이다. 현재는 샘터가 있고 숲이 우거져 있다(사진 3).

사진 3. 비대천

14. 빌레통

'진소'에서 40m 정도 내려온 중문동 2252번지 서쪽 기슭이다. 여기도 냇바닥이 하나의 커다란 바위로 되어 있어 물이 모여져 흐르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빌레'는 땅속에 묻혀 있어 땅 위로 조금 나와있는 암반을 나타내는 제주어이다. 여기에서 동쪽 '만지샘오름'의 서쪽 벽을 꼬불꼬불 돌아 오르내리는 유일한 통로가 있으나 너무 경사가 급하고 위험해서 노약자는 다니기가 어렵다.

15. 가시물

'흙소' 옆에 있으며 중문동 2254번지 옆이다. 천제연의 깊은 계곡 안에 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부근에 쥐가시나무가 자라고 있어 '가시물'이라고 부른다. 물이 맑고 수량도 풍부하여 부근 논에 사용됐으나 1981년 태풍 에그니스 때 홍수로 인하여 계곡안의 논이 모두 떠내려가 바위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다. 현재는 높은 절벽과 가시덤불이 덮여있다.

16. 흙소

'빌레통'에서 남쪽으로 100m정도 내려온 곳으로 중문동 2254번지 옆에 있다. 비가 오면 근처의 노면을 타고 흘러내린 흙탕물이 모여들어 커다란 물웅덩이가 형성되기 때문에

'흙소'라 부른다. 이곳에 가려면 '베린포구'에서 상류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여름철 아이들이 수영을 하고 놀던 곳으로 근처에서는 은어도 걸리고 게를 잡기도 한다. 현재는 높은 절벽과 가시덤불로 뒤덮여있다.

17. 오름골

중문동 2622번지에서 중문동 2307번지 일대로 베릿내오름 앞 서쪽에서 동쪽골짜기에 해당된다. 배릿내오름 앞에 있는 물골이라고 해서 오름골이라 부른다. 오름앞에는 두 개의 물골이 흐르는데 웃골은 대정현감을 지낸 채구석이라는 분이 1907 ~ 1908년까지 공사를 하여 천제연 웃소의 물을 끌어온 물골인데 오름 앞 5만여 평에 물을 보내 벼농사를 짓게 되었다. 알골은 1923년에 만들어 졌는데 천제연 알소의 물을 끌어다 너베기쪽에 물을 보내 3만여 평에 논물로 사용되었다.

18. 고대통

천제연의 하류, 성천포 다리밑 바닷물과 냇물이 만나는 곳으로 중문동 2631번지 앞 일대이다. '고대'는 물에 자라는 대나무의 일종인데 '고대'가 자라는 통이라고 하여 '고대통'이라 부른다. '고대'는 갈대의 제주어이다. 과거에는 밀물 때 바닷물이 들어와 물에 자라는 갈대가 자생하였는데 지금은 별로 없으며 성천포구가 가까이 있다(사진 4).

사진 4. 고대통

19. 너베기케

중문동 2502번지 일대이다. 중문마을의 남쪽 '베릿내' 동쪽이다. 땅이 기름지고 농사가 잘되는 넓고 기름진 땅이라는 뜻이며 '베기'는 특정한 작은지역, '케'는 지역을 나타내는 제주어이다. 과거 천제연 '알소'의 물을 끌어다 논으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20. 불목케

마을의 남쪽 '베린포구' 가는 길 중간쯤인 중문동 2540번지 일대로서 천제연의 물을 두갈래 줄기로 이곳까지 끌어왔는데 웃골 물은 '베릿내오름' 앞 논농사로, '알골' 물은 '너베기' 논에 물을 보냈는데, 이 지역은 물길이 지나는 지형이 높아 물골을 만드는데 매우 힘이 들었다고 한다.

21. 베릿내

중문동 2647번지 일대 하천의 별칭이다. 천제연 냇가의 가장 하류인 이곳에 달린 작은 포구와 동네까지를 말한다. '베릿'은 '기정'으로 높다란 절벽이라는 제주어이다. 과거에는 반농반어의 생활을 하는 20여 가구가 살았으나 1970년대 말 관광단지가 조성되면서 지금은 추억속의 마을이 되었다(사진 5). 그리고 베릿내 포구 입구에는 포구 개척을 위해 헌신한 선조들의 업적을 기린 유적비가 세워져있다(사진 6).

사진 5. 베릿내

사진 6. 유적비

22. 비늘찍 | 베늘찍

중문동 2289번지 서쪽으로 천제연 하류이다. 천제연에 서식하는 은어는 봄에 바다에서 올라와 이곳에서 성장하여 가을바람에 알을 산란한다. 산란된 알은 일주일 후에 부화되어 바다로 내려가 월동을 한다. 바다에서 성장한 치어는 다시 냇물을 따라 올라오는 성질을 이용하여 은어를 잡았는데 가을이 되면 냇물을 가로막아 하류로 내려가는 은어를 잡기 위해 돌담을 쌓고 돌담사이 구멍을 풀로 막은 물막이 돌담을 '찍담'이라 불렀는데 두 군데 정도 높이를 낮추면 은어는 이곳을 넘게 되는데 여기에 싸리나무 또는 대나무로 엮은 통발을 받쳐두면 은어가 들어와 걸리게 된다.

사진 7. 비늘찍

봄에 올라오는 치어는 '올림은어', 가을에 내려가는 은어는 '내림은어'라고 한다. 이 지역은 냇가 하상이 넓고 평평하여 물 흐름이 느린 곳이다. 햇빛이 비추면 고기비늘이 빤짝거리듯 작은 물결이 햇빛에 빤짝거려서 '비늘찍'이라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부근 일대에 구 관광단지와 동부 관광단지를 연결하는 다리가 놓여져 있다(사진 7).

22. 베릿날당(싱거물당)

중문천 하류 바닷가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음력 정월 보름과 팔월 보름에 제를 지낸다. 알당 여드레하고 해서 난미(난산)서 온 사람들이 다닌다고 한다.

Ⅳ. 중문천의 개답(開畓)

예로부터 제주지역은 지형적인 특성상 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개답(開畓)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다. 특히 조선중기부터 많은 개답이 이루어져 18세기말 경에는 水田이 급격히 증가하기도 하였다.

예전부터 중문 마을 사람들은 중문천의 풍부한 물을 이용하여 논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였다. 천제연의 양쪽가에는 3개의 물골이 있는데 동쪽에는 웃골과 알골, 서쪽에는 섯골로 세 개의 물골중에 섯골을 먼저 만들었는데 지형이 험하고 군데 군데 암반으로 되어 있는 곳을 1893년 색달리에 사는 김천총씨가 착공은 하였으나 자본이 부족하여 대정군수를 지낸 송경연씨가 인계를 받아 완성시켜 개여물케 물을 대어 논을 만들었다. 당시 공사방법을 살펴보면, 단단한 암반위에 장작을 쌓아 불을 붙여 뜨겁게 달구거나 독한 소주를 부어 불을 붙여 암반을 더욱 뜨겁게 가열한 후 찬물로 급속히 냉각시켜 주면 암반이 폭음을 내며 깨지게 된다.

동중골 웃골은 1901년 천주교난 관계로 대정군수직을 파면당한 채구석씨가 중문에 살게되자 “천제연 물을 이용하여 논을 만들면 만인이 살 수 있을 것”이라 하며 여러차례 현장조사와 치밀한 계획을 세워 논을 만들었다.

중문천에는 1907～1908년 대정군수 출신 채구석(蔡龜錫)의 주도로 중문 천제연 물을 이용하여 중문 광베기 일대 5만평을 논으로 만들었고 1923년경 대포지역 너베기 일대 역시 논으로 만들 기록이 있다[8].

채구석은 3여 년간 걸친 현장조사 끝에 천제연 물을 이용하여 논을 만들 계획을 세워 1907년 천제연 토지신께 토신제를 지낸 다음, 착수 2년여간의 공사 끝에 성천봉(星川峯, 베릿내오름) 아래로 물을 대어 1908년 천제연 웃골 논을 완성하였다.

---

8) 채구석 등에 의해 작성된 『立式契約書』 참조

중문천 개답 1차 공사는 천제연 1단폭포 연못의 물을 끌어들여 시작했는데, 암반지대인 천제연에 물길을 뚫는 것은 대단한 난공사였다. 채구석은 천제연 150m 가량의 암반지대를 뚫기 위해 소주원액을 붓고 장작불로 폭파했다고 한다. 가장 난공사 지역인 이곳은 천제연 1단 폭포 내 창구목(사진 8)과 화폭목(사진 9)에 해당한다. 장작불로 바위를 부수고 뚫어 2km나 되는 물골을 베릿내 오름(해발 101m) 앞까지 만들어 중문 광베기 일대 5만여 평을 개답하여 나록(水稻) 농사를 하기 시작했다[9].

사진 8. 창구목

사진 9. 화폭목

당시에는 화약을 구해 화포를 만들어 바위를 부수고 뚫어 2키로미터나 되는 물골을 베른내 오름앞까지 만들어 5만평 논에 벼농사를 짓게 하였다.

알골은 1923년에 만들었는데 웃골과 나란히 뻗어나가 대포서쪽 너베기 일대에 물을 보내 논을 만들었다. 당시 공사에 참가한 성인의 품삯은 일단 3돈(엽전 30개)이었다. 1957년 천제연 입구에 개척기념비가 새워졌다(사진 10).

중문천 개답 2차 공사는 천제연 2단폭포인 '알소'에서 너베기 지경, 즉 '알골수로'까지 이다. 채구석 등에 의해 작성된 『立式契約書』에 의하면, 이 해 윤2월 착수했다. 계약인은 1차 수로공사의 수주(水主)인 채구석 등 3인으로 되어 있으며 '광백이(너배기) 지경의 논공사는 목적한 대로 이룬 바, 각 3인이 공동 분담해 하되 공사비를 내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선다.' 고 기록되어 있다. 2차 공사가 완료된 시점은 채구석 사후인 1923년으로 대포지역 너베기 일대 2만여 평의 논이 추가로 만들어졌다.

9) 중문 향토지 '불란지야 불싸지라' 중문마을회, pp152~154.

중문 천제연 입구에 세워진 '채구석 개척기념비'는 1957년 8월에 대정 유림들이 대정군수 채구석을 기리어 세웠는데, 비 앞면에는 '通訓大夫 대정군수 채구석기적비'라 새겨있고 비 뒷면에는 그의 공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사진 11).

사진 10. 채구석기적비

사진 11. 기념비 뒷면

대정현의 천제연폭포는 중문천이 흘러 영소를 이루었다. 마치 우렛소리처럼 들리고 비가 내뿜는듯하며 용과 교룡이 그 속에 숨어 산다. 앞뒤를 두른 기암노수는 완연히 금병활화와 같아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곳을 탐승하는 사람으로서 그 경치와 또 맑고 깊은 물을 보아 탐미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이 물을 당겨서 민생에 이롭게 한 사람은 없었다. 채구석은 이곳을 한번 보고난 후 이곳을 완상하기에만 그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이것을 灌溉에 이용할 수 있다면 만인을 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방도가 없겠는가를 궁리했다. 비록 못이 있는 곳이 낭떠러지가 심하여 물을 끌어올리기가 매우 어렵기 했지만 지세를 자세히 살펴보고 교묘하게 절벽을 따라 바위를 뚫고 한줄기 물길을 열어 놓았다. 이 물길을 성천봉 아래까지 2~3리 끌어당겨 5만여 평의 땅을 수전으로 개벽하였다. 농부나 소작인은 물론 누구나 지나는 사람은 지리를 잘 이용한 이 둑과 도랑을 보고 칭송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상고하건대 탐라는 옛날에는 수전이 없었는데 채 후가 이제 비로소 발명하였으니 비록 개척의 원조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작년 겨울 중문면민 父老들이 채 후를 위하여 비를 세우고 공적으로 적어 길이 추모하도록 하고자 鄕章甫 이기휴가 나에게 글을 청하여 왔다(중략).

채구석의 공적을 기리는 다른 개척비가 2003년 2월 26일 천제연 3단 폭포에 세워져 있다(사진 12). 성천답관개유적비(星川畓灌溉遺跡碑)라고 쓰여 있는 비석의 뒷면에는(사진 13)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천제연 1단 폭포가 발원지인 성천답 도수로는 대정군수를 지낸 채구석공(1899.7~1901.4)이 조선말기인 1901년 4월, 제주도 서부지역에서 발생한 이재수 난에 연루되어 대정군수 자

사진 12. 관개유적비

리에서 물러나 중문 마을에 살게 되면서 착상되었다. 공은 애민정신이 투철하고 과학적인 사고와 개척정신이 뛰어난 선구자로 지역주민에 편의와 복지를 위하여 헌신하셨다. 중문 마을 서쪽 남북으로 흐르는 천제연은 3단 폭포를 이루고 있다. 천상의 칠선녀가 멱을 감았다는 전설과 함께 맑고 수량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깊은 계곡은 기암창림이 어우러진 비경으로 보는 일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공은 천제연 물을 끌어내려 논농사에 이용한다면 만인을 살릴 수 있을 것임을 주창하고 토지주들과 의논하여 공사비는 토지주들이 자기 소유 토지의 반은 공사비로 내고 반은 作畓하기로 결정한 후 당시 토목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무릅쓰고 1906년에 착공하여 1908년까지 약 3년간에 걸쳐 역사에 길이 남을 도수로 공사가 완공되었다. 도수로 총 길이는 1,889m 성천봉 앞 5만여평의 땅에 물을 보내 이 일대가 옥답으로 변모하니 이 고장 사람들은 참으로 귀한 쌀을 생산할 수 있었다. 도수로 시작 부분은 단단한 조면암 절벽으로 이루어져 오직 곡괭이와 정과 돌 끌로 바위굴을 뚫기란 예상했던 상황보다 더 힘이 들어 엄청난 곤욕을 치루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암반 위에 장작불을 뜨겁게 지펴 바위를 가열시킨 후 다시 독한 소주를 부어 더욱 뜨겁게 가열한 다음, 찬물을 부어 급속하게 냉각시켜 폭발하도록 하였으며, 급락지대는 통나무에 홈을 파 구유를 만들어 도수로에 연결하고 송이지대는 물이 새나기지 못하게 찰흙으로 다지면서 튼튼한 도수로를 완공해낸 것이다. 가장 어려운 공사구간 156m에는 '창구목'과 '화폭목'이라는 이름까지 불여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 도수로 공사비로 지불하여 만든 도수로부지와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수삼을 두어 100년 가까이 관리하여 왔지만 구거로 등재되어 있어 보상없이 처리되었다. 1991년에는 중문관광단지 2차 개발지구로 모든 유지가 편입되고 옛날 옥답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비롯한 각종 시설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성천답회는 1세기 동안 지키고, 보존해 온 이 유적을 조상들의 지혜와 척박한 자연을 개척한 현장으로 후손들과 세인들에게 길이 남기고자 서귀포시의 지원을 받아 이 비를 세운다.

사진 13. 관개유적비 뒷면

그리고 관개유적지 하단에는 무산(無山) 강통원(姜通源)의 송시(頌詩)가 쓰여있다.

현재 이 지역은 대부분 중문관광단지로 수용되어 끊겨진 농수로(農水路) 흔적만이 일부 남아있다(사진 14). 문화재청은 논농사에 부적합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는 등 당시 제주도민의 생활상과 농업환경을 전해주는 중요한 문화자원으로 평가하여, 천제연 관개수로를 등록문화재 제156호로 지정하였다(사진 15).

사진 14. 농수로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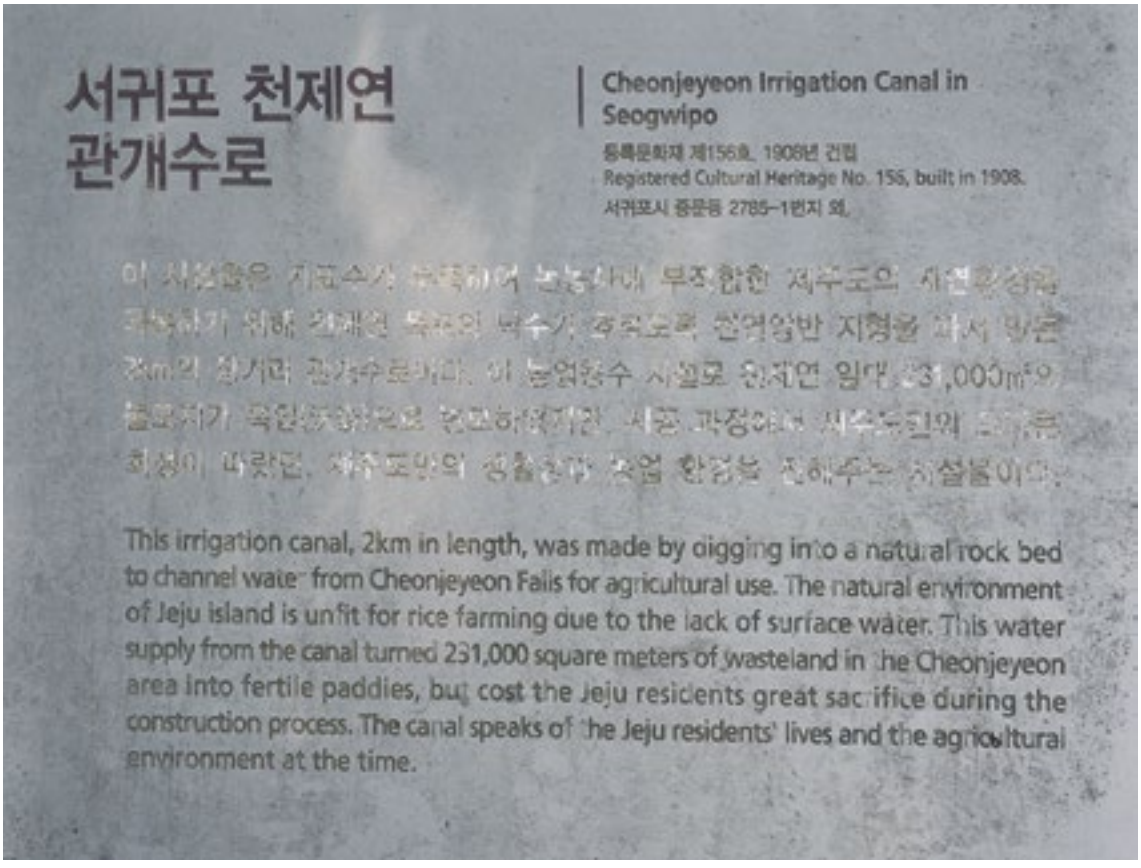

사진 15. 서귀포 천제연 관개수로 안내판

[참고문헌]

중문마을회(1996), 『불란지야 불싸지라』
서귀포시(1999), 『서귀포시 지명유래집』.
서귀포시(1998), 『서귀포시 문한자료집』
제주도(1985), 『제주도전설집』